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Sex)’과 사회적으로 주어진 ‘성별(Gender)’을 구분하라 -

이숙영 이숙영 자기계발 클리닉 대표

여자아이는 분홍, 남자아이는 파랑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선호도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이는 과거부터 거슬러온 현상일까 아니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현상일까? 성별을 규정하는 색상에 대해 미국 메릴랜드 교수 파올레티는 내셔널지오그래픽 2017년 1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세기 초가 돼서야 옷 색깔에 따른 성별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40년 무렵에는 분홍색과 파란색이 성별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인식이 확립돼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자아이는 분홍색, 남자아이는 파란색 현상이 고착화되는데 미국이 크게 기여했으며, 바비인형과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 그 외 미국 아동 상품에 흔히 사용된 색상들이 이를 부채질했다”. 또한, 이 잡지는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 젠더를 표지 모델로 내세웠다. 사진 속의 모델은 에이버리 잭슨으로 9살이다. “여자가 된 후 가장 좋았던 건, 더는 남자인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2016년에 개봉했던 <대니쉬 걸>이란 영화가 떠오른다. <대니쉬 걸>은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했던 덴마크 화가 에이나르 베게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원작이며, <레미제라블>, <킹스 스

피치>의 톰 후퍼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용기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여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경외감마저 들게 되는 명작이다. 우리는 대부분 가면의 삶을 살아간다. 어쩌면 너무 밀착되어서 가면인지 실제 얼굴인지 구분되지 않는 삶이다. 가족에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센 척’하는 남자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착한 척’하는 여자들 모두 삶이 고독할 수밖에 없다.

여성은 그냥 변호사, 의사가 아니고 여성 변호사, 여성 의사다. 보통명사 앞에 여성을 붙여 형용사 취급을 한다. 형용사 취급을 한다는 것은 잉여로 여긴다는 의미다. 원래는 그 명사에 내포되지 않아도 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Sex)’과 사회적으로 주어진 ‘성별(Gender)’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과 ‘성별’을 혼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건 ‘성(Sex)’ 때문이지만, 여성이 아이를 기르는 일을 도맡는 것은 ‘성별(Gender)’에 의한 것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모유를 수유하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도록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 이 글

을 읽고 있는 여성 중에 가족으로부터 “너는 멀쩡하게 생겨서 왜 그러냐?”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기서 ‘멀쩡하게 생겨서’는 ‘외모가 우락부락하지 않고 여성스럽게 생겨서’라는 말일 것이고 ‘왜 그러냐’는 ‘왜 여자답지 못하냐’는 의미일 것이다. 후자의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흔히 ‘여자답다’는 것은 집안일과 내조를 잘하며 조신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념들은 여성 자신의 관심이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즉 본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다.

일반적으로 모성성은 숭고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송한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의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특히 직장을 가진 이삼십대 여성에게 닥친 육아의 책임과 보육지원 정책은 전혀 숭고하지도 위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모성은 타고난 본성이 아닌 가부장제로부터 생겨난 이데올로기다. 모성을 타고난 것으로 여긴다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엄마들은 죄책감이 들게 마련이다. 대다수 엄마들은 엄마라는 사실이 싫다기보다는 엄마 역할로 주어지는 과다한 몫들을 싫어할 뿐이다.

여성주의나 페미니즘을 떠올리면 씹닭 또는 트집 잡는 여자들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들은 왜 씹닭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다지 편안하지 않다는 분노가 깔려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억압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그 억압받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다. 남성이 남성으로서 겪는 고통 역시 여성이 아닌 젠더라는 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원래 한 인간 안에는 여성성과 남

성성이 함께 공존한다. 이제는 여성은 여성 안의 남성성을, 남성은 남성 안의 여성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검은색과 흰색을 섞어 회색 인간을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과 차이는 지키면서 양성의 미덕을 갖추자는 것이다. 즉 ‘파로(섹스)’와 ‘같이(젠더)’의 문제를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득권이 있는 남성은 제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의 시국을 보라. 대통령과 청문회에 나온 기득권자들의 행태를.

지금은 다원화된 사회로 문화·인종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살려주는 시대다. 여자든 남자든 동일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성별이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젠더 무법자’의 케이트 본스타인은 남자 아니면 여자로만 구축된 이분법적 체제를 의심한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인가? 매달 하혈을 해서 여자인가? 많은 여자가 임신 가능성이 없는 몸으로 태어나고, 갱년기 이후에는 모든 여자가 임신 가능성이 없다. 이 여자들이 여자이기를 그만둔 것일까? 건강상의 이유로 자궁 절제술을 받았다면 이 수술은 성전환인가? 당신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남자인가? 만일 당신의 정자 수가 적어서 임신이 어렵다면 어떨까? 당신이 방사능 피폭으로 임신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러면 당신은 여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것이 곧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느끼도록 조건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차이를 견딜 수 있는 힘, 차이를 환대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야말로 나와 타인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TTA